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은빛찬양대 발족

63명 대원 임명 ... 5일(수) 첫 찬양

은빛찬양대가 발족되어 5일(수) I부 예배 시 임명식을 가졌다.

65세 이상 성도들로 구성된 은빛찬양대는 노년기에 속한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첫 찬양을 드린 은빛찬양대는 앞으로 매월 첫번째 수요일 I부 예배 시 찬양을 담당하게 된다.

은빛찬양대의 발족으로 우리 교회 찬양대는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은빛찬양대원 명단〉

- ◆대장 이용선 장로 부대장 백영희 권사
지휘 이보우 집사 반주 홍혜란 선생
서기 원복순 권사 부서기 박종민 권사
회계 김용숙 권사 부회계 방계운 권사

- ◆대원=이용선 이남호 박근준 최경애 김선미
전춘자 백영희 전인화 이옥현 이순례 조봉환
조명녀 최금혜 한경석 나옥녀 김현자 최난수
윤영자 김명숙 송영장 김정옥 김혜자 함송현
하인숙 권임정 김동호 김종자 이정숙 여옥기
이민화 김병숙 김현주 권영옥 김용숙 심재을

최영순 권영자 양태영 유병옥 방계운 유후자
김복녀 원복순 이옥녀 김진영 박종민 박순봉
노영숙 고후덕 박금옥 이남복 노인덕 김계순
김경희 최금자 강정옥 배영애 한금희 김종리
김연정 조옥순 김인식 정중순

4월 학습·세례식

4월 학습·세례식이 19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9일(주일) II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6일(주일) II부 예배 후 각각 403호실에서 있다.

이에 미참한 성도는 17일(월) 오후 7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 403호실에서 있다.

헬퍼(Helper)란 단순한 조력자나 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말한다.

오늘날 교회에는 헬퍼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인물, 잘난 체 하는 이, 교만한 이, 자기 은사만을 고집하는 은사 이기주의자들, 교회 밖 선교와 문화 현장에서 잘못된 리더

십으로 자기 영역만을 확장해 가는 지도자들, 실행은 없이 비전과 꿈만 키워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일꾼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 교회를 교실로, 예수님을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목회자로 그리고 부반장을 헬퍼로 가정해 보자. 반장은 담임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학급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한 심부름꾼이다. 반장은 모범생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반장의 리더십은 특권을 고집하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servantship)처럼 섬기는 데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 리더를 돕는 헬퍼는 담임선생님의 뜻을 살피며 반장을 도와야 한다. 담임선생님의 뜻보다 반장의 눈치에 급급할 경우 그 헬퍼의 역할은 왜곡되는 것이다.

헬퍼는 마라톤에서 우승 가능한 동료들 위

해 속도 조절을 하도록 배치된 선수(pace setter 혹은 pace maker)나 각종 경기의 연습 파트너처럼 각광받지는 못하지만 팀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연 배우는 주연을 돋보이게 할 뿐

퍼였던 갈렙, 다윗의 우정의 헬퍼 요나단, 예수님의 헬퍼 세례 요한, 바울을 리더로 섬긴 바나바는 본받을 만한 헬퍼들이다.

그런가 하면 착각한 헬퍼 아론(출32:1-6), 사악한 헬퍼 요나단(삼하13:1-5), 악한 리더를 잘못 선택한 아히도벨(삼하13:22-29), 헬퍼 사무엘을 버린 사울(삼상12:1-25) 등은 잘못된 헬퍼들의 모습이다.

온전한 헬퍼를 기다리며

헬퍼는 두려움으로, 주께 하듯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섬겨야 할 것이다(골3:22-24). 헬퍼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롬14:4).

헬퍼의 비전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며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 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

우리의 봉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한다. 또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헬퍼로서 사랑하라. 리더를 온전케 하라.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 헬퍼는 곧 리더다.

교구일꾼수련회에서

헬퍼(Helper)로서의 리더(Leader)

이종운 목사

아니라 연극 전체의 분위기를 살리기도 한다. 그의 말없이 흘린 땀은 보상받을 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여도를 공평하게 평가하신다.

우리는 주님처럼 섬겨야 한다

성부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사31:1, 시146:5, 시121:1-2, 시30:10).

성자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마20:28, 빌2:5-10).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요14:16, 26, 요15:26, 롬8:26-27, 엡4:11-12).

성경에 나타난 헬퍼의 모습들

인류 최초의 헬퍼는 하와로 그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

모세의 헬퍼 아론,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헬

이사야 강해

산헤립의 침공

이사야 36장 1 - 10절

본문은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랍사게를 시켜 예루살렘 거민을 위협하고 능욕하는 내용입니다.

1. 의무를 다해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을 많이 개혁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음 열정이 점차 식게 되고 개혁운동도 흐지부지하게 되자 하나님은 앗수르를 일으켜 유다를 침공토록 함으로 그들의 잠을 깨우셨습니다.

산헤립은 앗수르 열왕 중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서 BC 705년 7월(7월) 12일에 그의 아버지 사르곤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야망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틴과 애굽을 원정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의 세 번째 팔레스틴 원정입니다.

그 때 앗수르는 유다의 46개 성읍을 쳐서 정복했고, 히스기야 왕은 조롱에 갇힌 새처럼 조롱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조국의 영적 개혁운동의 기수가 되게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큰바람을 일으키시어 유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백성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안팎의 문제를 잘 다스렸고 특히 앗수르 왕과도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풍부한 예물을 보내어 앗수르 왕과 화친을 맺기도 했습니다(왕하 18:14). 그러나 앗수르 왕은 급기야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환난에 대한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랍사게는 당시 산헤립의 신임을 받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대장들의 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랍사게는 배교한 유대인으로 유창한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망령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서남쪽 에그론에서 3Km 지점에 위치한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습니.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2절)에 섰다고 했

습니다. 이 곳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 아람이나 사마리아를 두려워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것을 권고하던 곳이었습니다(사 7:3 이하). 이 일은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랍사게가 서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경건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

의 창조주 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당신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5-8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말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나 내가 말하노니 네가 죽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나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쪼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사 36:1 - 10)



이종운 목사

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입니다. 악은 잠시 흥할지 모르나 항상 흥할 수 없습니다. 랍사게가 와서 전쟁을 선언하고 조롱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3. 어리석은 신뢰자가 되지 말자

랍사게는 히스기야 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면서 방자하기 그지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력을 의지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6절).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강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고(사 30:3, 5, 7), 에스겔 역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겔 29:6-7).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같이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를 허다한 신들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우상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좇았습니다(사 36:18).

랍사게가 한 말은 자신이나 그의 왕 산헤립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을 반드시 심판으로 끝맺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자기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자기편으로만 이용하려고 한 오만한 짓입니다.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처럼 시험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례지에서

전에는 듣기만 하였삽더니

한선규(가브리엘찬양대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분별치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게, 제 일생을 뒤바꿔 놓는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97년 겨울,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숨은 건져주셨지만, 한 쪽 다리의 일부를 가져가시고 말았습니다.

건설회사의 지방 현장에 근무하던 저는 하루 하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헤어날 수 없는 나

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막으시려 제게 그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저를 사랑하심을 체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케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다. 온전한 두 다리를 가질 수 없음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쉽없이 기도케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쁨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의족에 의지해 겨우겨우 걸음을 걸던 저를 인도

하시어 가브리엘 찬양대에 다시 서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마음이 따뜻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인의 축복 속에서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신체의 일부가 온전치 못하여 생활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제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제가 주를 보나이다.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이 맘 변치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을 즐겁고 담담하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가족이 되고 보니

나도 일꾼이 되고 싶다

김은태(새가족부)

이제 등록한 지 1개월 남짓한 나는 아내와 함께 새가족부에서 공부하며 다른 새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일산에서 강남으로 이사 온 지 4개월 동안 교회를 정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갈등과 고심을 많이 해야 했다. 교회마다 멋진 웅변, 딱맞는 예화, 좋은 시설 등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두 번 생각해 보니 결정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다.

마침 수년 전 서울교회 어떤 성도가 자기의 받은 은혜를 알려주시며 목사님의 설교 테잎을 한뭇치 주신 것을 들었으며 이사 후에는 궁급하여 서울교회를 방문했고 예배드리며 “여기다” 하고는 등록한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생생한 인상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복음에 대한 목사님의 열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확신 있고 맛있고 쉽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시며 듣는 자에게 지금 그렇게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것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또 성도님들이 남자분들이 많아서 큰 힘이 있는 교회임을 감지했다. 사실 정장을 입고 조용히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습에 비록 화답은 적고 무거워 보였을지라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진지했다. 사귄수록 모두 귀하고 훌륭하시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말씀의 권위

에 그대로 순종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내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며 다닐 때마다 테잎을 들고 느낌을 나에게 전달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다. 지난 달 새가족 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정한 결정에 새삼 실감하면서 정말 잘하였다고 다짐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수료 후에는 교역자

들과 성도님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싶다. 우리 부부는 가정사역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긴 경험이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새로운 청년세대와 접촉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 서울교회에서 미력을 보태고자 한다. 공허한 상태에서 군대에서 예수를 영접한 나로서는 육사 세례식 같은 행사가 너무도 귀히 여겨진다.

나도 다른 이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일을 하는 성도가 되고자 늘 노력할 것이다.

은빛 찬양대가 태어난 그날

원복순(권사, 은빛찬양대원)

기적은 있고 하나님은 살아우리 곁에 계시십니다. 이제 백발로 변하여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은빛찬양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년 전 우리 서울교회가 세워지던 그날 기쁨과 서러움의 갈림길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길 없어 입술로 짹짹한 눈물을 먹던 백발의 은빛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빛으로 변화여간 우리 백발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사 은빛찬양대를 세워주셨습니다.

2000년 4월5일 수요일부 예배에서 우리 은빛찬양대원은 꿈에 그리며 바라보던 가운을 입고 찬양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당회장 목사님의 선서에 따라 호명을 받으며 가운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계수할 수는 없

으나 은빛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은빛찬양대원들은 설레는 가슴과 벽찬 감사 속에서 첫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날 넘치는 감사함에 이보우 지휘자 집사님의 지휘마저 희미하게 이슬로 덮여 보였습니다. 그 순간은 백발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제 은빛찬양대원 모두가 강건한 모습으로 힘차게 열심히 찬양할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는 말씀에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은빛찬양대원 되기를 아버지 앞에 다시 다짐합니다.

첫 번째 찬양악보를 든 은빛찬양대원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로 가리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순절 묵상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정윤돈 (목사)

기독교는 십자가와 텅빈 무덤을 사랑한다. 기독교 최대의 기념일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해야 한다.

한 내과 의사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 *

고통은 셋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눅22:44).

예수께서는 끌려 다니며 매를 맞으신다. 그리스도는 기둥에 두 손목을 묶인 채 매를 맞으신다. 채찍에 매달린 납덩어리와 뼈조각이 예수님의 피부를 후려쳐 피가 쏟아져 나오고 흐물거리는 살점들이 묻어나온다.

왕의 위엄을 표시하는 자주빛 망토가 그의

어깨 위에 걸쳐지고 가지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질 때 가지에 찢린 상처에서 피가 새어나와 머리카락에 엉켜붙는다. 이미 상처에 들러붙어 버린 망토가 예수의 몸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며 벗겨질 때 또 한 번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관습에 따라 125 파운드 (약60kg)나 되는 십자가의 가로 기둥이 그 어깨에 지워지고 손수 운반된다.

맨발로 650야드 (약600m)나 되는 먼길을 갈 때 예수는 자꾸만 땅에 쓰러지고 예수의 등은 살가죽이 벗겨지고 또 다시 상처가 터져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고통은 수백만 개의 날카로운 바늘처럼 예수의 온 몸과 신경 조직을 찌르기 시작한다. 예수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얼굴은 참혹하게 일그러지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통이 반복된다. 그의 고통은 극대화되고 그 격심한 고통과 고뇌에 떨려 이렇게 외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침내 예수는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의 죽음은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창이 예수님의 시체를 꿰뚫어 심장의 심낭자루를 지나 언제나 피가 가득차 있는 심장의 우측부를 찌른다. 그러자 피와 물이 함께 뒤섞여 시체로부터 마구 쏟아져 나온다.

* * *

이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53:5).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결과이다.

“참정권을 바르게 행사하자”

■...13일(목)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우리 모두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에 참여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야겠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 행위나 혈연, 지연, 학연 및 비방과 흑색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바르고 깨끗하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키도록 하자.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이 없을 경우엔 차선을 택해서라도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자. ■

공명선거를 위한 기도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도 이 세상과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서 죄의 용서와 화목을 이

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질서를 보존케 하시기 위해 국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3일에는 저희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거문화가 개혁되게 하시고 특히 기독교인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불법선거운동에 이용

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명선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며 인품과 정책능력이 뛰어난 후보들이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르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가진 후보들이 당선하게 하소서.

주님,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공명선거와 올바른 정책개발에 노력하게 하소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이 지혜롭고 바르게 선거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동정 ■

- *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 본부는 15일(토) 오후 7시 30분 소망교회당에서 탈북난민보호 운동 1주년기념 '탈북난민을 위한 음악회' 를 개최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홍정선 집사, 강풍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엘리야선교회는 10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참회의 삶을 살도록
2. 교구활성화와 교구일꾼들을 위해
3.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